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보성파워텍(006910)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윤승진 책임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계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99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보성파워텍(006910)

50년 전통의 국내 대표 전력기자재 전문기업

기업정보(2025.07.07 기준)

대표자	임재황
설립일자	1970년 11월 21일
상장일자	1994년 09월 07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주요제품	철탑 및 철구조물, 전력기자재

시세정보(2025.07.07)

현재가(원)	3,23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587
발행주식수	49,129,824
52주 최고가(원)	4,280
52주 최저가(원)	2,100
외국인지분율	1.57%
주요주주	임도수 외

■ 다양한 전력기자재 생산

보성파워텍 주식회사(이하 '동사')는 1970년 '보성물산'으로 설립되어, 이후 '보성중전기'를 거쳐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되었으며, 5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송배전 자재 및 발전소, 변전소 철골 등 전력산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력기자재의 개발, 제작,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동사는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고품질 기자재를 공급하며, 안정적인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력기자재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5.4%로 예측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변압기, 송전철탑, 개폐기 등을 포함하는 한국의 전력 송배전 장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60억 달러 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2030년까지 약 91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연평균 성장률(CAGR)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약 5.4%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장세는 노후 전력 인프라의 교체 수요 증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강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를 향한 새로운 다짐, 에너지신사업 확장

동사는 원자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전남 나주에 '에너지밸리 1호 기업'을 신축하며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주파수조정용 ESS(에너지저장장치), BESS(배터리저장시스템), EV(전기차) 충전기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풍력 연계형 ESS와 세계 최대 규모 FR ESS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공공·민간 부문에 ESS를 보급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활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542.0	-20.9	-44.9	-8.3	-111.1	-20.5	-12.9	-11.3	5.8	-226	1,651	N/A	2.3
2023	784.9	44.8	33.5	4.3	43.5	5.5	5.3	4.8	13.9	89	1,733	36.9	1.9
2024	770.6	-1.8	48.2	6.3	59.5	7.7	6.8	6.1	7.6	121	1,844	21.1	1.4

기업경쟁력

<p>축적된 기술력과 제조 노하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 경험 보유 · 전력기기 및 철강구조물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공정 기술력 강화
<p>자체 공장을 통한 직접 생산 체계 다양한 전력기자재 공급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충주 제1, 2, 3공장 및 전남 나주공장에서 자체 공장을 통한 직접 생산 · 가스개폐기, 주상변압기, 송전철탑, 발전소 및 변전소용 철구조물 등 공급

핵심 기술 및 적용 제품

<p>핵심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철탑, 발전소/변전소용 철구조물, 강관전주 분야의 철강구조물 제작 기술 · 가스개폐기(SF6), 주상변압기, 피뢰기, 절연장치 분야의 전력기기 제작 기술 · 주파수 조정용 ESS, 풍력 연계형 ESS, BESS 및 EV충전기 분야의 ESS 및 BESS 융합 기술 · 원전 철구조물, 고내열고강도 구조물 분야의 원자력 기자재 기술
<p>주요 적용 제품 (생산공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철탑 : 초고압 송전망용 철강구조물 (충주공장) · 가스개폐기 : 절연 내압 성능 우수, 중·고압계통용 개폐장치 (나주공장) · ESS 시스템 : FR ESS, BESS, 풍력 연계형, 가정용 등 타입 다양 (현장구축형) · 원자력용 철구조물 : KEPIC 인증 기반 고강도 구조물 (충주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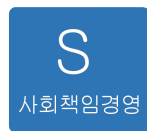
시장경쟁력

<p>차별화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배전 기자재부터 ESS, 원전까지 다양한 시장 경쟁력 보유 ·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 채택에 따른 맞춤형 대응력 확보 · KC, KEPIC 등 품질 인증 확보 · EV충전기, BESS, 스마트그리드 등 차세대 기술 확보
<p>경쟁 우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한전·공기업 공급망과 민간 태양광·ESS 시장 동시 대응 가능 · 해외 수출 실적 및 국가 기반 프로젝트 참여 다수 · 한전,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한전KPS 등 주요 전력 공기업에 지속적 납품 실적 보유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 ◎ 재생에너지 기반 ESS, EV 충전기 및 BESS 등의 분야로 사업 확장
- ◎ 에너지신사업 전진기지로의 활용을 위한 전남 나주 에너지밸리 공장 신축
- ◎ 친환경 인프라 확대와 탄소 중립 실현



- ◎ 충주공장 및 나주 공장 등 지방 거점 생산설비 운영을 통한 고용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 ◎ 안전보건법규 준수
-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추진목표 공시



- ◎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신용등급 관리를 통한 지배구조의 건전성 유지
- ◎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함으로써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

I. 기업 현황

5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전력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

동사는 1970년 설립 이후 전력산업에 사용되는 전력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재 제조 기업으로, 송배전 자재 및 발전소, 변전소 철골 등 다양한 전력 기자재의 개발, 제작,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고품질 기자재를 공급하며, 안정적인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력기자재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70년 11월 설립되어, 1994년 0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5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송배전 자재 및 발전소, 변전소 철골 등 전력산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력기자재의 개발, 제작,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동사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대창길 70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충북 충주공장 및 전남 나주 공정에서 가스개폐기, 주상변압기, 송전철탑, 발전소, 변전소용 철구조물 등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1970. 11	보성물산 설립	창업기
1980. 10	본사 및 공장 이전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31-2)	
1991. 05	부설연구소 설립	성장기
1991. 10	제3공장 설립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29-4)	
1991. 11	보성중전기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발전기
1994. 09	주식 장외시장(코스닥) 등록	
1998. 11	NT(신기술)마크 획득	
2000. 01	보성파워텍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도약기
2003. 10	충주공장 1공장 이전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402)	
2006. 02	한전KDN과 사업협력 체결	
2007. 04	당진공장 인수 (충남 당진군 면천면 죽동리 102-1)	
2007. 06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철골 공급계약 (한국수력원자력)	
2007. 08	수직배치형 강관철탑 신기술 제61호 지정	
2007. 10	건축용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서(1등급) 획득	
2009. 12	충주 제2공장 준공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405)	
2012. 09	765kV 철탑시험장 준공 (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439)	
2013. 07	KEPCO Trusted Partner 협약	
2015. 06	한국전력공사 FR사업 등 신에너지사업 구축	
2016. 04	충주 3공장 준공 (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창길 38)	
2017. 05	나주공장 준공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3길 40)	
2022. 11	명문장수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동사 홈페이지 및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대표이사 임재황(1967년생, 중앙대 전기공학과 졸업)은 2000년 동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년 7월 전 대표이사 임도수(현, 회장)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5년 3월 31일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임도수로, 보통주 3,075,778주를 보유하며 전체 지분의 6.26%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한숙, 임재황, 임재평 등 특수관계인이 각각 1.65%, 5.89%, 0.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율은 14.56%에 해당한다. 나머지 85.43%의 지분은 자기주식과 기타 주주가 보유 중이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

(단위 : 주, %)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임도수	3,075,778	6.26	본인
임재황 등 3인	4,080,540	8.31	특수관계인
자기주식	200,000	0.41	
기타 주주	41,773,506	85.02	
합계	49,129,824	100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5.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최근 3년간 신용평가 내역

2025년 3월 31일 기준, 동사는 이크레더블(신용평가회사)로부터 3년 연속 정기 신용평가를 받아 왔으며, 그 결과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다. 2023년 4월에는 B+ 등급을 받았고, 2024년 4월에는 BB+로 상향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25년 4월에는 BBB-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현재의 BBB- 등급은 기본적인 채무이행 능력은 양호하지만 경기 및 환경 변화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표 3] 동사의 최근 3년간 신용평가 내역

평가일	평가회사	신용등급	평가구분
2025.04.03	이크레더블	BBB-	정기평가
2024.04.12	이크레더블	BB+	정기평가
2023.04.19	이크레더블	B+	정기평가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5.05)

■ 생산실적

동사는 충주공장과 나주공장을 중심으로 철탑, 철구조물, 개폐기, 변압기 등의 전력기자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생산능력은 약 710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2023년) 생산능력인 약 586.7억 원 대비 21% 증가한 수치로, 주요 수주 제품군인 송배전자재 및 중전기기의 납품 확대와 설비 투자 확대 및 생산효율 향상의 결과로 분석된다.

공장 가동률 측면에서도, 당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2,719시간의 가동 가능 시간 중 2,211시간을 실제 가동하여 평균 가동률 81.34%를 기록하였다. 이는 제조업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설비 활용도를 의미하며, 안정적인 생산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당사가 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생산성과 운영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근거로 평가된다.

[표 4] 동사의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 억 원)

사업부문	사업소	주요제품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전력산업	충주공장 나주공장	철탑, 철구조물 개폐기, 변압기	생산능력	710.0	586.7	577.3
	충주공장 나주공장	철탑, 철구조물 개폐기, 변압기	생산실적	577.5	430.3	428.7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5] 동사의 가동률

(단위 : 시간)

사업부문	사업소	주요제품	구분	가동가능시간	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전력산업	충주공장 나주공장	철탑, 철구조물 개폐기, 변압기	2024년 가동률	2,719	2,211	81.3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제품 매출실적

당사는 2024년도 기준 총 매출액 770.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도(2023년, 784.9억 원) 대비 소폭 감소(-1.8%)하였다. 매출 구성은 제품매출, 상품매출, 기타매출의 세 가지로 나뉘며, 이 중 제품매출이 전체의 약 86.3%를 차지해 핵심 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매출 중에서는 철탑 제품의 매출이 345.7억 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하며 단일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고, 그 뒤를 이어 개폐기(12.5%), 관형지지물(7.2%), 기타매출(7.0%), 상품매출(6.7%) 순으로 매출이 발생하였다.

철탑의 경우, 2024년 매출이 345.7억 원으로 전년(159.7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내 송전설비 확대와 공공 발주 물량 증가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개폐기의 경우, 2022년에는 21.5억 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3년에는 58.7억 원, 2024년에는 96.2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반면, 관형지지물은 2023년 89.7억 원의 실적을 기록한 뒤 2024년에는 55.8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철강구조물 또한 지속적인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회사의 주력 제품 구성이 철강구조물과 같은 전통 구조물 중심 품목에서 개폐기와 같은 고부가가치 전력기자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상품매출과 기타매출 측면에서는, 기타 전력기자재의 상품매출이 2023년 228.4억 원에서 2024년 51.5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기타매출에 해당하는 공사 및 임가공 매출은 2024년 53.9억 원으로, 전년(69.4억 원) 대비 다소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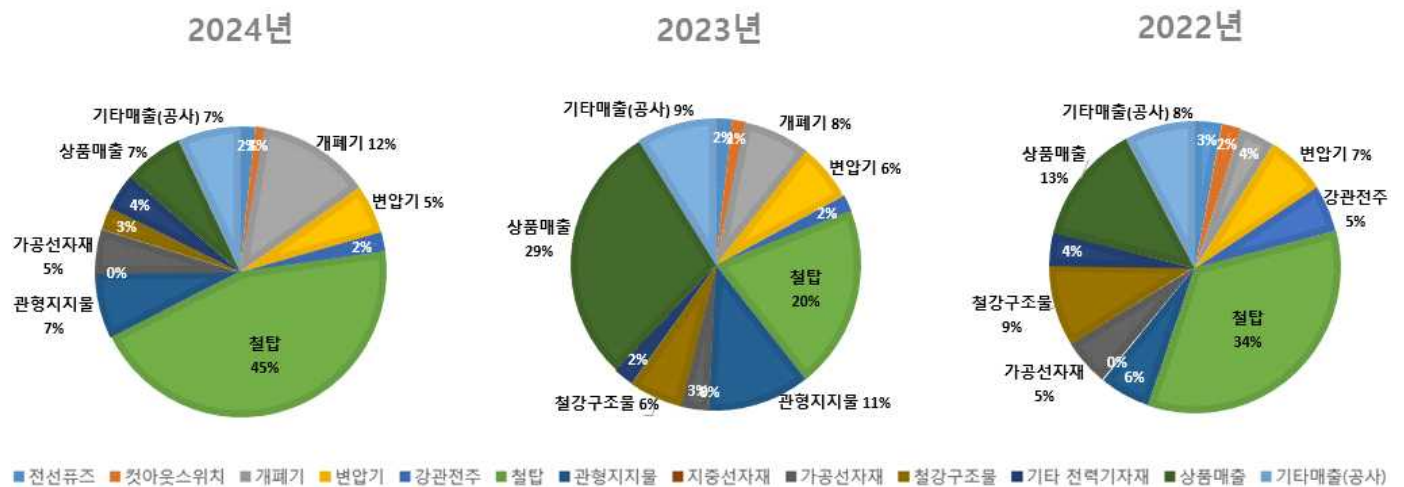
[표 6] 동사의 주요 제품 매출실적

(단위 : 억 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전력산업	제품매출	전선퓨즈	내수	12.2	13.9	16.1
		킷아웃스위치	내수	8.5	11.4	11.4
		개폐기	내수	96.2	58.7	21.5
		변압기	내수	42.4	50.5	37.0
		강관전주	내수	16.1	14.7	27.6
		철탑	수출	-	-	28.9
			내수	345.7	159.7	156.9
		관형지지물	내수	55.8	89.7	30.5
		지중선자재	내수	-	0.1	0.4
		가공선자재	내수	37.6	23.9	28.2
		철강구조물	수출	-	-	-
			내수	19.3	46.6	49.3
		기타 전력기자재	내수	31.4	18.0	19.6
	상품매출	기타 전력기자재	수출	-	76.6	5.1
			내수	51.5	151.7	67.1
	기타매출	기타 임가공용역	내수	53.9	69.4	42.4
			수출	-	76.6	34.0
	합계		내수	770.6	708.3	508.0
			수출	-	76.6	34.0
합계			770.6	784.9	542.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그림 1] 최근 3년 동사의 주요 제품별 매출비중 (상품매출, 기타매출 제외)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전기 공급에 필수적인 기초 기자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전력산업은 전기 공급에 필수적인 기초 기자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제품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제품의 종류 및 규격이 다양하여 대량생산체제 구축이 어려워 동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종 업체가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력산업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및 경제 산업화와 연관된 육성정책에 힘입어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성장에 따른 설비투자증가 및 전력수요증가 요인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 전력 산업 특성

▶ 산업의 특성

전력산업은 전기 공급에 필수적인 기초 기자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내외의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 등 산업연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기 공급이라는 산업특성으로 인해 제품 생산에 대한 고도의 안전성과 내구성,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기술축적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제품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제품의 종류 및 규격이 다양하여 대량생산체제 구축이 어려워 동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종 업체가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산업의 성장성

전력산업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및 경제 산업화와 연관된 육성정책에 힘입어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성장에 따른 설비투자증가 및 전력수요증가 요인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성장에 예상된다. 최근에는 AI 반도체, 슈퍼컴퓨터,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고 있고, 대규모 전력 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HVDC(초고압직류송전) 방식을 채택한 대규모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지원까지 강화하면서 HVDC 전력망 관련 전력기자재 및 송배전자재 산업의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경기 변동의 특성

전력기자재 생산 전문기업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한전의 전력설비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외의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 성수기와 전력수요가 적은 겨울철 비수기로 구분하고 있다.

▶ 경쟁 상황

전력기자재 생산 전문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 및 규격이 다양하여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고도의 안전성과 내구성,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기술축적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다양한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계, 생산, 품질인증 관련 오랜 경력의 다수의 전문직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전력산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정부의 육성정책과 내수시장 보호정책에 힘입어 고도의 성장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 분야로 인식되어 점차 경쟁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력 송배전 장비 시장의 국내외 시장 동향

동사의 주요 제품인 송전철탑, 변압기, 개폐기 등은 모두 전력 송배전 인프라의 핵심 장비에 해당하며, 이들이 포함된 시장은 일반적인 전력 산업 시장중에서도 구체적인 전력 송배전 장비 시장(Transmission & Distribution Equipment Market)이다. 이 시장은 전력망 인프라의 구축, 확장,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들의 수요를 반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송배전망 교체 수요, 스마트 그리드 도입 등과 같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국내 전력 송배전 장비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6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약 9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5.4%의 안정적인 성장률에 해당한다. 정부의 전력망 고도화 사업, 스마트그리드 실증 및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연계 계통 확보 정책이 국내 장비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중앙 집중형 발전 구조에서 분산형 전원 확대 및 전력 피크 관리가 강조되면서, 개폐기, 절연체, 변압기, 송전철탑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수요가 기술 고도화와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송배전 장비 시장의 규모는 2025년 약 5,002억 달러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약 6,996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평균 약 6.94%에 달하는 성장률을 의미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초고압 송전망(UHV) 구축과 같은 대형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에서는 노후 송배전망의 교체 및 디지털 전력망 구축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전력정책 차이에도 불구하고, 송배전 장비 시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반적인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국내외 전력 송배전 장비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확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기업들은 제품 고도화, 지역 다변화, 친환경 설계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전력망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제어장치, 자동화 기반 보호계전기 등의 기술 융합이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R&D 및 사업 전략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국내 전력 송배전 장비 시장 규모



자료: Grand View Research (South Korea Electric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Equipment Market Size & Outlook, 2023-2030),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그림 3] 글로벌 전력 송배전 장비 시장 규모



자료: Mordor Intelligenc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Equipment Market Size & Share Analysis - Growth Trends & Forecasts, 2025-2030),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전력기자재에 대한 핵심공정 기술력 확보

동사는 전력기자재 전문 제조 기업으로, 송배전 자재 및 발전소, 변전소 철공 등 전력산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력기자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 배전,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전력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보호하는 핵심적인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력기자재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 배전,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전력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보호하는 핵심적인 장비를 통칭한다. 이러한 기자재는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발전소, 변전소, 산업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다양한 전력 인프라에 폭넓게 적용된다. 전력기자재는 최근 몇 가지 기술적 흐름과 맞물려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첫째, 송전 전압이 초고압(UHV)화됨에 따라 345kV, 765kV급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절연기술과 기기 내구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환경 규제의 강화에 따라 SF6 가스를 대체할 친환경 절연기술과 비가연성 절연유 등 신소재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셋째, 전력망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IoT 센서와 통신 기반의 모니터링 기술이 접목되며, 계통 운영의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확산과 분산형 전원의 증가로 인해, 출력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고속응답형 개폐기나 고효율 변압기 등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Steel Tower (철구조 사업)

동사의 Steel Tower 사업 분야는, 송전철탑을 비롯한 각종 전력 구조물의 설계, 제작, 시공에 이르는 종합적인 철강 구조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사는 고압 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송전철탑을 중심으로, 발전소 및 변전소 구조물, 통신탑, 강관전주 등 다양한 형태의 강구조물을 제작 및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1970년대 송전철탑 제작을 시작으로 국내 전력 인프라 발전과 함께 꾸준히 사업영역을 확대해왔으며, 현재는 초고압(UHV) 송전탑, 내진설계 철탑, 특수지형(해안·산악·도심) 대응 구조물 등 고난이도 구조물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54kV 단도체용 케이블헤드 수직배치형 강관철탑’은 전력신기술 제61호로 지정된 바 있고, 154kV, 345kV, 765kV 등 국내 고압 송전 계통에 필요한 철탑 표준규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등 주요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수십 년 이상 사용되기 때문에, 동사는 내구성과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면처리 기술(도금, 방청), 고강도 재질 사용, FEM 기반 구조 해석 등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을 최소화한 경량화 설계, 조립형 모듈 구조 개발, 그리고 시공 편의성 향상을 위한 현장 시공 자동화 장비 활용 등으로 기술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사의 Steel Tower 사업은 고압 전력망 인프라에 핵심적인 구조물을 공급하는 전문 강구조물 사업영역이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수행 가능한 기술력과 풍부한 납품 실적을 통해 전력 인프라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연계 송전망 확장, 노후 철탑 교체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이 사업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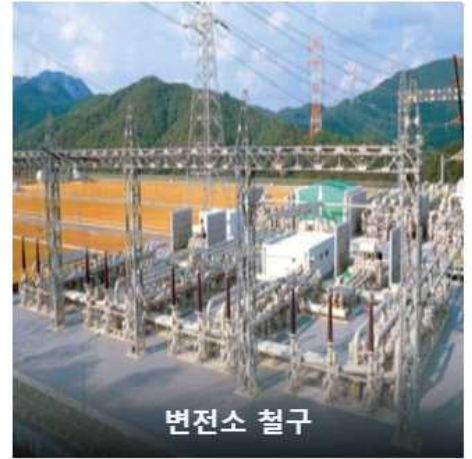
[그림 4] 동사의 송전선로



송전철탑



관형지지물



변전소 철구

자료: 동사 홈페이지

■ Renewable Energy (에너지 사업)

동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사업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를 중심으로 한 발전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이를 ESS와 연계한 통합 전력관리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EPC(설계·조달·시공) 기반의 턴키 솔루션을 수행하고 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산업용 및 공공용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구조물 설계와 태양광 모듈 배치 기술, 고효율 인버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된다. 특히, 동사는 지붕형, 수상형, 농지형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설비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지형과 수요 조건에 대응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풍력 발전 부문에서는 중대형 풍력 터빈을 활용한 발전소 설계 및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기초 구조물부터 송전 계통 연계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해상풍력 발전 시장을 대비하여 해양 구조물, 송전 계통 접속 설비에 대한 기술력도 확보해나가고 있다.

ESS 분야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저장과 효율적인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SS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원의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고, 주파수 조정 및 피크 부하 관리 등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다. 동사는 PMS(ESS 운영시스템), PCS(전력 변환장치), BMS(배터리관리시스템) 등을 자체 기술로 통합하여, 고효율·고안정성의 ESS 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을 단순한 기자재 납품 수준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시공, 계통 연계, 전력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전력기기 제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전략적 전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전환 전략과 맞물려 향후 신재생에너지 기반 EPC 사업은 회사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동사의 신재생에너지형 ESS 개념도 및 사업실적



자료: 동사 홈페이지

■ Power Plant (플랜트 사업) 및 Electricity (전기보호 사업)

동사는 화력, 수력, 원자력 등 다양한 발전소 유형에 적용 가능한 철골 구조물 및 기반 설비를 제작하고 시공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일러 구조물, 터빈 구조물, 캐노피 및 발전기 서포트 구조물 등 주요 기자재를 자체 설계하고, 고온·고하중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와 방청처리 등의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고압 및 저압 수배전반, 변압기, UPS(무정전 전원장치), 조명, 접지 및 피뢰설비 등 산업 및 공공 전력 인프라에 필요한 핵심 전기설비를 공급 및 설치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건물, 항만, 산업단지, 플랜트 등 다양한 적용처에서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동제어시스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지능형 전력제어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ESS, 분산형 전원 계통과의 연계에 있어 중요한 기술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림 6] 동사의 플랜트 사업 실적 및 주요 전기 제품



자료: 동사 홈페이지

■ PEST 분석

동사의 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분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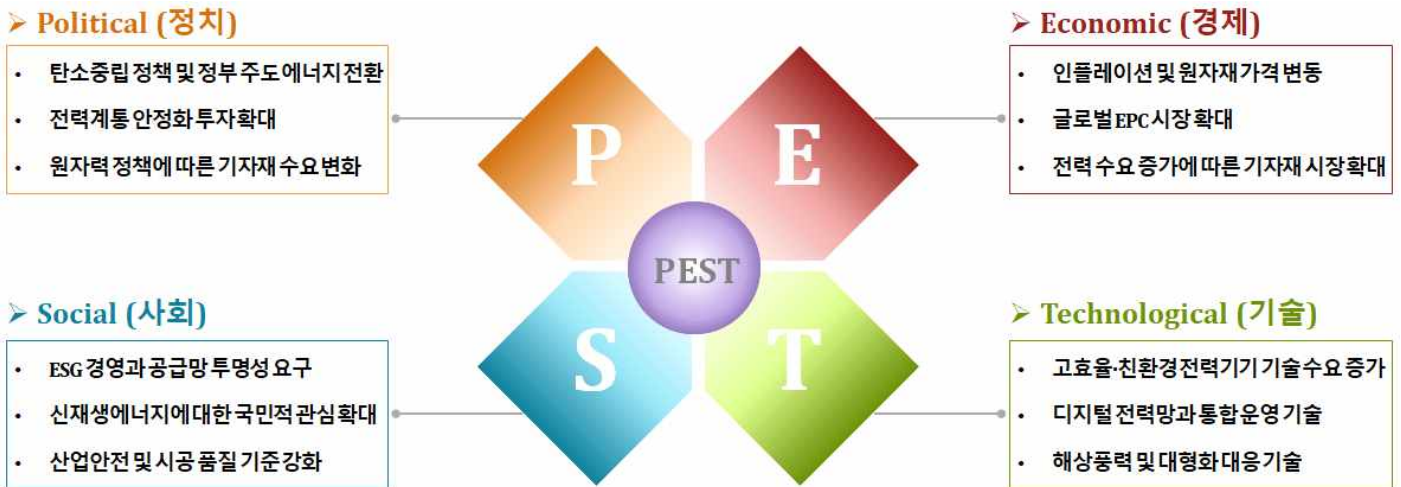
먼저 정치적 요인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동사의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전략, 송배전망의 고도화,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은 전력기기와 철강 구조물, ESS 등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 정책의 재정립 역시 회사의 원자력 기자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과 글로벌 EPC 시장의 경쟁 구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철강, 구리, 절연유 등 주요 자재의 국제 가격이 상승할 경우 동사의 제조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데이터센터, 스마트공장 등 고전력 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배전반, 변압기, ESS 같은 전력기자재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신흥국 중심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해외 EPC 프로젝트 수요 증가 역시 동사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진출 전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ESG 경영의 확산과 함께 친환경 기자재의 사용, 투명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시공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전력·에너지 분야에서도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민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는 태양광, 풍력, ESS 등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이는 동사의 사업 다각화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전제품 시장의 소비 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주요 고객 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요인에서는, 고효율·고신뢰성 전력기기 개발과 디지털 전력망 연계 기술이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SF6-Free 절연 기술, 친환경 절연유, 디지털 보호계전기, IoT 기반 원격제어 시스템 등은 향후 전력 산업에서 보편화될 기술이며, 동사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품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 확대, 초고압 송전망 구축 등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구조물 설계 및 고난도 시공 역량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림 7] 동사 산업의 PEST 분석



IV. 재무분석

2024년 매출외형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익성 양호, 재무안정성 양호

동사는 정부의 신규 원전건설 재개에 따른 수주증가와 국내 전력기자재 분야의 수요시장 개선의 영향으로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으나, 2024년 매출외형은 소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원가 절감 및 비용감소를 통해 수익구조가 개선되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44.1%, 36.8% 증가하였다. 원자재 구입에 따른 매입채무에 대한 현금결제 증가로 부채총계가 감소하였고, 순이익 시현을 통한 이익잉여금 증가로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재무안정성의 핵심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 최근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으로 전력기자재 및 송배전자재 산업의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향후 동사의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2024년 매출 소폭 감소, 산업 성장을 통한 반등 기대

동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2년 542.0억 원, 2023년 784.9억 원, 2024년 770.6억 원을 시현하여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2022년 대비 각각 44.8%, 42.2% 증가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매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정부의 신규 원전건설 재개에 따른 수주증가와 주요 매출처인 한전의 전기요금 정상화에 따른 국내 전력시장 경영환경 안정화로 국내 전력기자재 분야의 수요시장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

동사의 주요 품목별 매출 실적은 [전선퓨즈 / 컷아웃스위치 / 개폐기]의 경우, 2022년 49.0억 원, 2023년 83.9억 원, 2024년 117.0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변압기]의 경우, 2022년 37.0억 원, 2023년 50.5억 원, 2024년 42.4억 원으로 변동성을 보였다. [강관전주 / 철탑 / 관형지지물 / 철강구조물]의 경우, 2022년 293.3억 원, 2023년 310.7억 원, 2024년 436.9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지중선자재 / 가공선자재 / 기타 전력기자재]의 경우, 2022년 48.1억 원, 2023년 42.1억 원, 2024년 69.0억 원으로 변동성을 보였다. 기타 매출로 구성된 [기타 공사용역]의 경우, 2022년 42.4억 원, 2023년 69.4억 원, 2024년 53.9억 원으로 변동성을 보였다.

동사는 2024년도 매출외형이 직전년도 대비 -1.8%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5년 1분기 매출은 174.5억 원으로 직전년도 동분기(170.0)억 원 대비 2.7% 증가하였다. 최근 AI 반도체, 슈퍼컴퓨터,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지고 있으며, 대규모 전력 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HVDC(초고압직류송전) 방식을 채택한 대규모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전력기자재 및 송배전자재 산업의 성장성이 높아져 향후 동사의 매출외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가 절감 및 고정비 감소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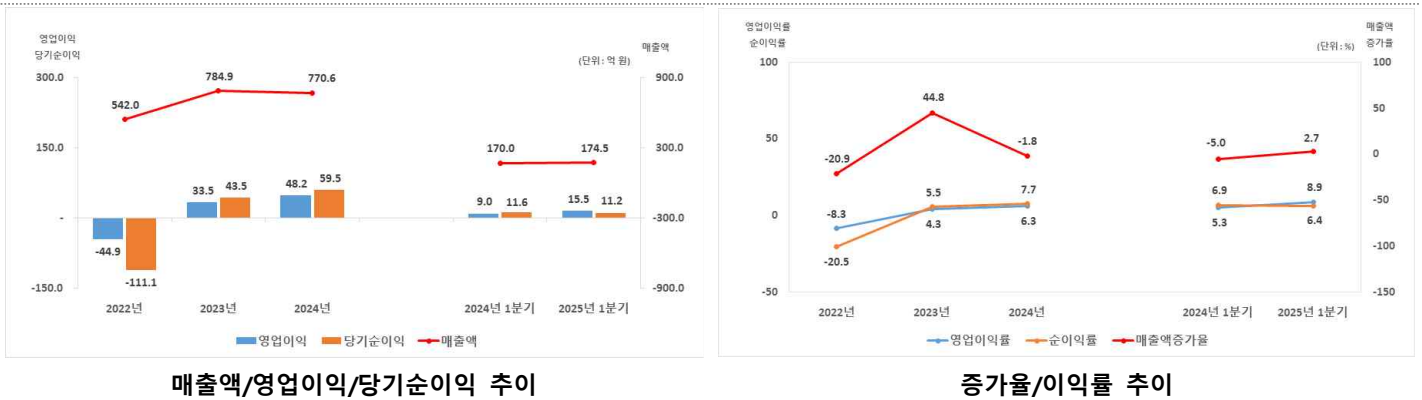
동사의 주요 원재료는 [철강재 형강], [철강재 철판], [철강재 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가격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철강재 형강]의 경우, 2022년 1,270원/kg, 2023년 1,170원/kg, 2024년 1,050원/kg, [철강재 철판]의 경우, 2022년 1,200원/kg, 2023년 1,110원/kg, 2024년 940원/kg, [철강재 강관]의 경우, 2022년 1,500원/kg, 2023년 1,460원/kg, 2024년 1,340원/kg으로 주요 원재료 모두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동사의 최근 3년간 매출원가율은 감소추세를 보였고, 2022년 96.1%, 2023년 89.3%, 2024년 85.8%로 2024년의 경우 2022년 대비 10.3%p 원가 절감에 성공하였다.

동사는 2022년 영업손실 44.9억 원, 당기순손실 111.1억 원을 시현하였고, 이는 부진한 매출과 높은 매출원가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2024년의 경우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감소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비용감소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되었고, 그로인해 2024년 영업이익은 48.2억 원으로 직전년도(33.5억 원) 대비 44.1%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은 6.3%로 직전년도(4.3%) 대비 2.0%p 증가하였다. 2024년 당기순이익의 경우 59.5억 원 시현하여, 직전년도(43.5억 원) 대비 36.8%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순이익률은 7.7%로 직전년도(5.5%) 대비 2.2%p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15.5억 원으로 직전년도 동분기(9.0억 원) 대비 72.2%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의 경우 11.2억 원으로 직전년도 동분기(11.6억 원)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8]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및 동사 분기보고서(2025.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재무안정성 핵심지표 양호

동사의 최근 3년간 부채총계와 부채비율은 2022년 46.8억 원(5.8%), 2023년 117.8억 원(13.9%), 2024년 69.0억 원(7.6%)으로 변동성을 보였다. 2023년 부채총계 증가는 원자재 구입 증가에 따른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2023년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는 110.9억 원으로 직전년도(38.9억 원) 대비 184.9% 증가하였다. 2024년의 경우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는 60.9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원자재 구입에 따른 매입채무에 대한 현금결제가 증가하여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사의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은 2022년 94.5%, 2023년 87.8%, 2024년 92.9%로 2024년의 경우 재무안정성 지표가 직전년도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유동성 지표 또한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의 증감에 영향을 받는데, 동사의 최근 3년간 유동비율은 2022년 1,015.9%, 2023년 463.0%, 2024년 768.1%로 변동성을 보였다. 2023년의 경우 현금및현금성 자산 195.4억 원 포함 유동자산 522.4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비율이 직전년도 대비 552.9%p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2024년의 경우 유동비율은 직전년도 대비 305.1%p 증가하였고, 현금 현금성자산은 78.8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직전년도 대비 단기부채 상환능력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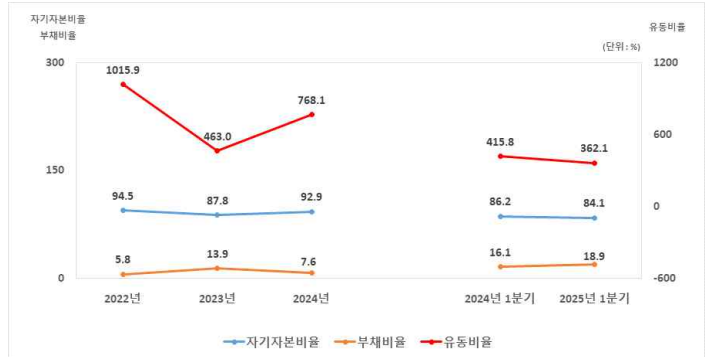
2025년 1분기의 경우, 부채비율 18.9%, 자기자본비율 84.1%, 유동비율 362.1%로 직전년도 동분기 대비 재무안정성 지표가 소폭 약화된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림 9]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및 동사 분기보고서(2025.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7]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기준)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1분기	2025년 1분기
매출액	542.0	784.9	770.6	170.0	174.5
매출액증가율(%)	-20.9	44.8	-1.8	-5.0	2.7
영업이익	-44.9	33.5	48.2	9.0	15.5
영업이익률(%)	-8.3	4.3	6.3	5.3	8.9
순이익	-111.1	43.5	59.5	11.6	11.2
순이익률(%)	-20.5	5.5	7.7	6.9	6.4
부채총계	46.8	117.8	69.0	138.1	172.5
자본총계	807.8	848.2	902.6	859.9	913.7
총자산	854.6	966.0	971.6	998.0	1,086.2
유동비율(%)	1,015.9	463.0	768.1	415.8	362.1
부채비율(%)	5.8	13.9	7.6	16.1	18.9
자기자본비율(%)	94.5	87.8	92.9	86.2	84.1
영업현금흐름	-88.3	116.8	-100.0	3.9	69.6
투자현금흐름	54.2	-32.2	-15.3	-34.5	8.2
재무현금흐름	-98.1	-2.1	-1.6	0.1	0.5
기말현금	112.7	195.4	78.8	165.0	139.6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동사 분기보고서(2025.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전체 매출은 최근 3개년 동안 전반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54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44.8% 증가한 784.9억 원을 달성하였다. 2024년에는 일시적으로 770.6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791.5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전반적인 성장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서퓨즈, 컷아웃스위치, 개폐기 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49.0억 원에서 2023년 83.9억 원, 2024년 117.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12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는 산업현장의 노후 설비 교체와 신규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변압기 부문은 2022년 37.0억 원에서 2023년 50.5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24년에는 42.4억 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45.0억 원으로 소폭 회복이 기대된다. 이는 고효율 변압기 수요 증가와 일부 교체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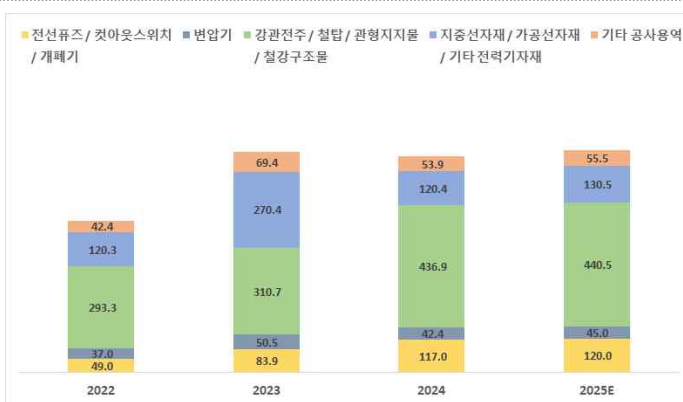
강관전주, 첩탑, 관형지지물, 철강구조물 부문은 동사의 핵심 사업 부문으로, 2022년 293.3억 원에서 2023년 310.7억 원, 2024년에는 436.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440.5억 원이 예상되며, 국내외 송배전망 확충 및 구조물 수요 증가가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중선자재, 가공선자재, 기타 전력기자재 부문은 변동성이 큰 영역이다. 2022년 120.3억 원에서 2023년 270.4억 원으로 급증했으나, 2024년에는 120.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25년에는 130.5억 원으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형 프로젝트에 따른 매출 기저효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전력 인프라와 철강 구조물 관련 사업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관전주 및 첩탑 부문은 국내외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매출 견인이 예상되며, 개폐기 등 배전설비 부문도 교체 수요와 함께 성장 여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일부 사업부문의 매출 감소는 일회성 요인으로 분석되며, 2025년에는 주요 부문의 회복과 고른 매출 분산을 통해 실적이 다시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내 전력망 고도화, 신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확충,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그림 10]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기준)



품목	2022	2023	2024	2025E
전선퓨즈 / 컷아웃스위치 / 개폐기	49.0	83.9	117.0	120.0
변압기	37.0	50.5	42.4	45.0
강관전주 / 첩탑 / 관형지지물 / 철강구조물	293.3	310.7	436.9	440.5
지중선자재 / 가공선자재 / 기타 전력기자재	120.3	270.4	120.4	130.5
기타 공사용역	42.4	69.4	53.9	55.5
합계	542.0	784.9	770.6	791.5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동사의 국내외 시장 확대 및 국내 전력 수요의 지속적인 확장 국면

동사와 한국전력과의 총 수주액은 1,115억 원에 이르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 및 생산기술력 강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전력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최대전력수요는 2023년 기준 약 98.3GW에서 2038년에는 약 145.6GW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전력소비량(연간 전력 총사용량)은 2023년 약 546.0TWh에서 2038년까지 약 735.1TWh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변동사항

동사의 2024년 사업보고서 및 2025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동사는 수익성, 매출 구조, 수주 현황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동사항을 겪었다.

먼저, 수익성 측면에서는 2024년 연간 기준 동사는 약 770.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2023년) 대비 약 1.8% 소폭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약 48.2억 원 및 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1% 및 36.8% 증가하여 수익성은 뚜렷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매출 구성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전력기기(전기부문)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SS, EV 충전기, 수배전반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판매가 점차 확대되면서 전체 매출 대비 전기기기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사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한국전력과의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강관철탑 공급계약을 기존 약 244억 원에서 약 304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총 수주액은 1,115억 원에 이르고, 설계 및 생산기술력 강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 전력 수요 전망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준 수요 전망 기준으로 2038년의 전력소비량은 약 735.1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의 546.0TWh 대비 약 189.1TWh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대전력 수요는 하계 기준으로 2023년 98.3GW에서 2038년 145.6GW로 증가하며, 연평균 2.4%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전력 집약적 산업의 확장이 있으며, 둘째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수요의 급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가정 및 상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양상이 전기 중심으로 전환되며, 전기냉방 및 전기난방 기기의 보급이 증가하는 점도 수요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비전력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력 수요 증가는 단순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넘어, 전력 인프라 전반(송전설비, 변전소, ESS(에너지저장장치), 수배전반, 전력기기 등)의 수요 증가로 직결된다. 이는 동사와 같이 전력기기 및 에너지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에게는 중장기적인 성장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

■ 멀티팩터 스타일 분석

에프앤가이드 상장기업분석의 멀티팩터 스타일 분석에 따르면, 동사의 베타값은 0.28로 자본재 업종 평균(-0.18)보다 높지만 시장 평균(1.00) 대비 낮아 주가가 외부 시장 충격에 덜 민감한 편으로 방어적 특성의 중목임을 나타낸다. 동시에 거래도는 1.38로 자본재 업종 평균(0.57)을 크게 상회하여 유동성이 풍부한 중목임을 보여준다. 또한 주가 변동성은 0.06으로, 업종 평균(0.20)보다 낮아 전반적인 가격 안정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다만, 배당성(-1.60), 수익건전성(-1.77), 성장성(-1.55) 등의 수치는 모두 업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나 주주환원 정책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 기업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업규모 지표가 -3.08로 업종 평균(-2.33)보다도 낮아, 시가총액 및 자산 기준으로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투자활동 역시 기업투자 지표가 -0.57로 설비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거시경제 민감도는 2.0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사가 금리, 환율, 경기지표 등 외부 거시경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경기 확장기에는 실적 및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모멘텀(-0.34) 및 단기 수익률(-0.08)은 모두 음수로, 최근 주가 흐름이 둔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밸류 지표는 -0.42로 평가되는데, 이는 현재 주가가 수익 대비 다소 고평가되었음을 시사하며, 업종 평균(-0.0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동사는 단기 수익이나 배당보다는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와 경기 회복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장기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 중목으로 평가된다.

[그림 11] 동사의 멀티팩터 스타일 분석



팩터명	보성파워텍	자본재(업종)
베타	0.28	-0.18
배당성	-1.60	-0.44
수익건정성	-1.77	-0.33
성장성	-1.55	-0.53
기업투자	-0.57	-0.14
거시경제 민감도	2.00	0.28
모멘텀	-0.34	0.09
단기 Return	-0.08	-0.51
기업규모	-3.08	-2.33
거래도	1.38	0.57
밸류	-0.42	-0.02
변동성	0.06	0.20

- 베타 : 중목의 시장대비 민감도
- 수익건정성 : 현금에 의한 이익의 자산대비, 주가대비 비중
- 성장성 : 자산, 매출액, 이익 등 기업의 성장 추이
- 기업투자 : 기업의 설비투자, 광고, 임금 등의 투자 현황
- 거시경제 민감도 : 주식의 거시경제변수 대비 민감도
- 단기 Return : 단기 주식수익률
- 거래활발도 : 주식의 거래량 현황 및 추이
- 밸류 : 기업가치 대비 주가비율을 이용한 주가의 시장 평가
- 변동성 : 주가 수익률의 절대적 변동성과 시장대비 상대적 변동성
- 배당성 : 기업의 최근 및 과거 배당성향
- 모멘텀 : 주가의 상승 및 하락률
- 기업 규모 : 시가 총액 및 자산 기준의 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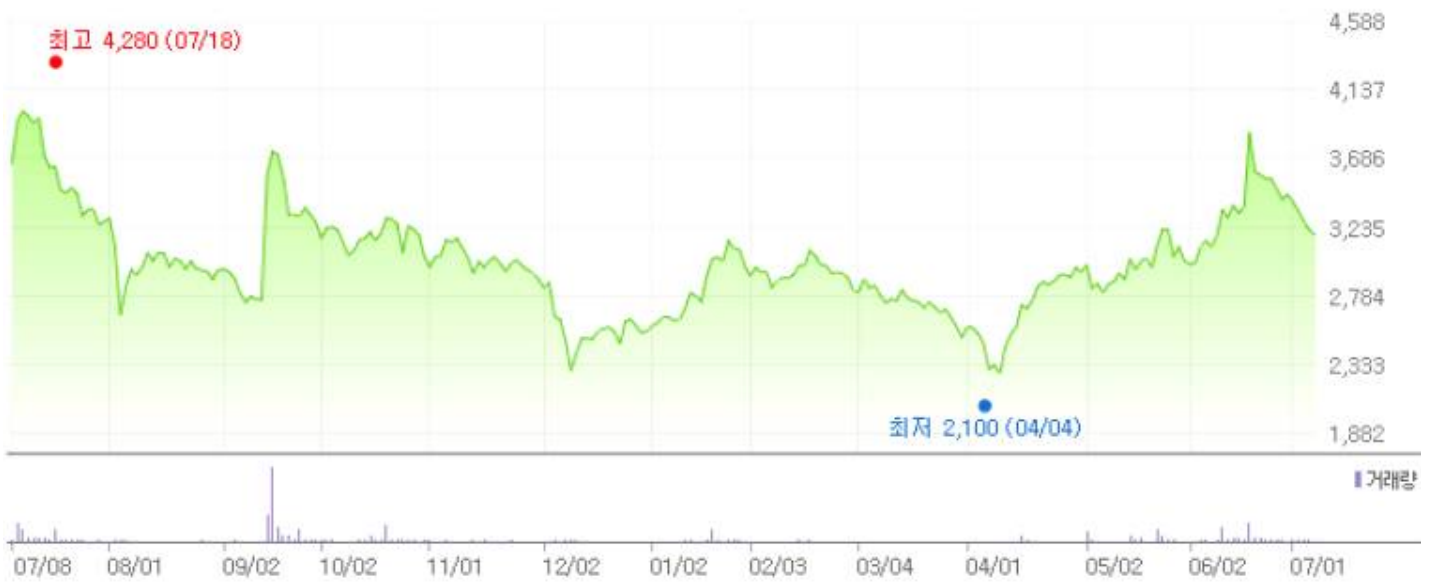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상장기업분석 홈페이지(2025.07.07),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한국거래소(KRX)



자료: 네이버증권(2025.07.07.)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보성파워텍	X	X	X